

국토부, 산하 공공기관 업무환경 개선 선도

- 산하 공공기관 청년직원 소통 미팅(6.5.) 계기로 청년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산하 공공기관이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터로 거듭나도록 조직 문화와 일하는 환경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- 국토교통부는 6월 5일 ‘산하 공공기관* 청년직원 소통 미팅’을 개최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, 조직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젊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.
 - * 국가철도공단, 국립항공박물관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,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, 주식회사 에스알, 주택도시보증공사, 코레일 네트워크, 한국국토정보공사, 한국공항공사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논의 직후, 건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을 지시하였으며, 그 결과 직원 역량강화, 조직문화 개선, 조직역량 향상 등의 개선안이 마련되었다.
- 산하 공공기관 신규직원 교육기회 확대(국가철도공단), 유연근무 제도 정비(국립항공박물관),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전확보 방안 마련(에스알), 기관장 소통을 위한 ‘굿모닝 커뮤니티’ 운영(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) 등이 즉시 시행에 착수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조직문화 혁신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국토부-산하 공공기관 청년 교류회 등을 통해 기관 간 청년조직 네트워킹을 강화한다.
- 원 장관은 “공공분야에 능력 있는 청년이 모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관리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”면서, “개선안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	책임자	과 장	최아름 (044-201-3634)
		담당자	사무관	박소영 (044-201-3635)
<공동>	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강 욱 (044-201-3213)
		담당자	사무관	양상모 (044-201-3216)

□ 주요 개선 내용

- 9개 산하 공공기관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하여 해당 기관 신규직원 교육기회 확대, 유연근무 제도 정비 등의 업무환경 개선 예정

기관명	현행	개선
국가 철도 공단	○ 현재 재직경력 3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철도 관련 전문교육 운영 중	○ 직급과 관계없이 철도 분야, AI 및 빅데이터 기술 관련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가 양성지원 확대 추진 (‘24~)
국립 항공 박물관	○ 기존 08시~19시 내 유연근무 사용 가능	○ 07시~20시로 유연근무 시간 선택 범위를 확대하여 유연근무 활용 유연성 확대 - 출·퇴근 시간 선택 범위 확대를 위한 「유연근무제 운영세칙」 개정 및 복무시스템 개선(‘23.9월)
에스알	○ 인원 부족으로 인수인계 애로	○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업무별 매뉴얼을 재정비 하고(‘23.7월) -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사전확보 방안 마련 (‘23.10월)
대한 건설 기계 안전 관리원	○ 신규 직원 업무적응 기간 확보 미흡	○ 하반기 입사직원 대상 신규직원 교육 및 조직적응 지원 멘토링 제도 시행 (‘23.7월~) ○ 개인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(‘23.10월~)
코레일 네트 웍스	○ 직원 평가제도 미비	○ 신규 다면평가 및 개인 목표관리제(KPI) 도입(‘23.7월)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역량평가 시행(‘24년~)